



# JARA NEWS

JAPAN AUTOMOBILE RECYCLE NETWORK NEWS

Vol. 86 APRIL 2015

<http://www.jara.co.jp>

Published by JARA Corporation

Tokyo Head Office: Shinwa Bldg. 1-2-2-7F  
Nihonbashi, Chuo-ku, Tokyo, JAPAN 103-0027  
Phone: +81 3 3548 3010 / Fax: +81 3 3231 4690



## JARA와 빅웨이브, 경영 통합을 향해 협상 개시

자동차 재활용부품 유통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대표적 기업인 JARA(기타지마 소쇼 (北島宗尚) 사장, 도쿄도 주오구)와 빅웨이브(하토리 아츠시(服部厚司) 사장, 아이치 현 아마시(愛知県あま市)는 경영 통합을 위해 협상을 시작할 것을 밝혔다. JARA는 지난해 4월에 구 SPN과 구 에코라인이 합병하여 탄생하였다. 이번 협상이 성사되면, 시스템 회원 수는 업계 최대인 약 250사가 되며 사업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사용 후 자동차의 확보난과 타사와의 경쟁 격화 등 과제가 산적된 업계의 재편성이 가속된다.

“(통합으로 인해)장점이 단정보다도 크다고 생각한다.” JARA의 기타지마 소쇼 사장은 12일에 도쿄도 내에서 빅웨이브와 함께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통합의 의의를 강조하였다. 양사는 지금까지 네트워크 연계에 의한 부품의 상호유통과 BEST리사이클러즈 얼라이언스 (BEST)에서의 합동 연수 등, 긴밀한 연계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조직 간에 있어 부품 유통은 활발화되어,

수 있도록 하고 싶다.” (도몬 고로(土門五郎) 회장)는 생각이다. 양사는 앞으로, 통합 협의를 본격화시켜 연내에 기본 합의를 목표 한다.

통합을 위한 논의에 대해, 하토리 사장은 “조직 풍토의 차이도 있기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해결해 나간다.” 라는 중요성을 지적한다. 1986년에 설립된 빅웨이브는 업계 안에서도 가장 오래된 재활용 부품 유통 회사로서 시장 개척을 해 왔다. 한편으로 JARA는 작년 4월에 구 SPN과 구 에코라인이 합병하여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양사의 지금까지의 상황은 전혀 다르며, 통합 후의 경영 체제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가 초점의 하나가 될 것 같다.

BEST에는 SSG(하마다 야스오미(浜田泰臣) 사장)와 ARN(오카다 다카노리(岡田誉伯) 회장)이 참가하고 있으나, 이 두 회사는 “지금까지 그대로이다. ARN이란(부품의) 상호 유통도 해 오고 있기에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하토리 사장)라고 한다.

자동차 재활용 부품 업계는 사용 후 자동차의 ‘총알 부족(재고 부족)’ 만이 아닌, 부품 운송비의 급격한 상승 등도 있어

회원 간의 교류도 눈에 띈다. 연계에 의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번 통합으로 “보 다 강력한 체제가 구축될

## CO2 삭감 수치 (수퍼라인 시스템)

재사용부품 사용으로  
CO2 삭감 효과 참고치  
2015년2월

# 2, 883t

※일반, 중·대형을 포함한 자동차 수리 시, 신상품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CO2 배출량과 재활용부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CO2 배출량의 차이가 CO2 삭감 수치가 됩니다.

일반사단법인 일본자동차리사이클부품협회와 와세다대학 환경종합센터가 LCA (전생애 환경평가기법 (life cycle assessment))라는 기본 생각에 근거하여 공동 개발하였다.

「그린포인트시스템」으로부터 참조

어려운 경영 환경이 늘어나고 있다. 재활용 부품의 보급도 진행되지 않고, 답보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양사는 현재 상황의 타파를 향해 “살아남기 위한 유통 확대와 조직 확대” (동)으로 이어 간다. 통합이 실현된 경우, 조직으로서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지만, 각 가맹 회원의 수익성을 어디까지 높일 수 있을 것인가가 과제이다.

일간 자동차신문 2015년 3월 19일(목)

## 재활용의 현재 상황과 과제 -중-

장래에 있어 국내에서의 사용 후 자동차의 발생 대수의 감소가 예상되는 자동차 재활용 업계. 단체에 따라서는 차량 매입 사업자나 오토옥션(AA)사업자 등과 연락 등 접촉을 통해,

Continued on Page 2

## 경산성과 환경성, 자동차 리사이클법 재검토 세 가지 관점을 주제로 전문 합동 회의에서 논의

자동차 리사이클법의 논점 정리를 위한 논의가 17일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앞서,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은 지금까지 관련 단체에서 시행한 의견청취를 통해 정리한 자동차 리사이클제도의 재검토를 향한 주요 논점을 발표. 두 관계부처는 자동차 리사이클법의 시행 상황과 과제에 대해, 세 가지 관점을 주제로 하여 전문의 합동 회의에서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다. 참가 위원으로부터는 여러 지적과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결론의 방향성으로 현 제도의 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 가운데 ‘자동차 재활용의 국제 전개’가 처음으로 논의될 전망으로, 활발화되고 있는 자동차 재활용업의 세계화가 합동 회의의 논점으로 부상된 것이다.

17일에 열린 합동 회의에서는, 먼저 행정 총 담당자가 자동차 리사이클법의 평가·검토를 향한 논점 정리에 관해 설명이 있었다. 제시한 세 가지 논점은 (1) 자동차

에 있어 3R의 추진·질의 향상 (2) 자동차 리사이클제도의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운용 (3) 앞으로의 자동차 리사이클제도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자동차에 있어 3R의 추진·질의 향상’에서는 2R(재사용·폐기물의 감량화)의 추진, 차세대 자동차와 신소재의 다양화에 대응 강화를 검토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동차 리사이클제도의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운용’에서는, 주로 제도 그 자체의 언급이 중심이 된다. 사용자에 대한 재사용·리빌트 부품의 인지도 향상이나, 특정 재자원화 예약금의 활용 방법의 검토, 지정 법인의 역할 정리 등의 재활용 전체의 사회적 비용 저감이 기둥이 된다. 또한, 인수 사업자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상당히 나온 점에서 인수 사업의 실상에 대해서도 논점에 포함될 것 같다. 또한 해체사업자로부터도 개선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던 불법 야드나 부적정 처리에 대해 대응 강화도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특정 재자원화 물질 등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자에 의한 부적정 처리와 허위의 이동 보고가 확인되고 있어, 재활용의 진척 상황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나 평가 등의 대책의 충실함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을 기록하였다.

‘앞으로의 자동차 리사이클제도의 바람직한 모습’에서는, ‘자동차 리사이클제도의 지속적이며 자립적인 발전’을 논점으로 제시하였다. 자동차 리사이클제도는, 신차

시장의 변화나 자원 가격의 변동 등 주변 환경에 대응하는 유연성과 사회 비용 저감이 향상 요구되고 있는바,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다. 그리고 장래에는 커다란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동차 재활용의 국제 전개’에서는, 해체사업자만이 아닌 지식인들로부터도 ‘신흥국의 폐차 문제 등 과제 해결을 위한 노하우를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지구 환경에 기여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합동 회의에서는, 일본의 지금까지의 기술과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여, 세계에 이바지해 나갈 것인가를 검토한다.

참가 위원으로부터는, 지정 법인의 역할이나 업무의 의의, 차세대 차에 있어 희소 자원의 회수와 재활용을 시행할 경우의 가치 사슬의 구축에 대한 필요성 등의 의견이 있었다.

합동 회의에서는 이 외에, 일본 손해보험협회에서의 의견 청취 결과나 ASR의 재자원화 상황, 차세대 자동차의 상황에 대해 각각 설명하였다. 앞으로의 논의는 세 가지 관점을 각각 각론으로 합동 회의를 진행해 간다. 애초에는 연도 내를 목표로 정리할 방향이었지만, 논점의 정리 등도 있어 늦어도 올여름까지 보고서를 정리할 전망이다.

일간 자동차신문 2015년 2월 19일(목)

### -Continued from Page 1

입고를 확보하려는 독자적인 대응책도 마련되고 있다. 자원 추출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히가시니혼 자동차 해체처리 협동조합에서는 ‘히가시니혼 모델’이라고 불리는 정밀한 해체를 전개하고 있다. 부품에서 추출되는 소재의 분석을 거듭 시행하는 등, “입고 대수가 적은 상황에서 어떻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를 노력하고 있다.” (츠보 지요시 (坪千代志) 이사장). 소재가 적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성을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는 경영 노력은 빠뜨릴 수 없다.

사업 환경에 있어 커다란 문제로서 많은 참가자가 언급한 것이, ‘물류비의 급상승’이다. 인터넷 쇼핑몰의 번창과 더불어 물류량의 증가, 운송 회사 측의 인력부족도 있어 운송비는 뛰어오르고 있다. “물류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고 있다.” (시라이온즈 클럽 (Sealions Club)·아마오카 요시오 (尼岡良夫) 회장)라는 것처럼, 이미 예상 이상의 비용이 적용되고 있다고 말하는 참가자가 많았다. 재활용 부품 사업자가 부품 운송비를 부담하는 경우와 사용자 측이 부담하는 경우로 두 가지가 있으나, 부품 가격에 이외에 운송비도 포함되면 신상품에

대한 가격의 우위성은 낮아진다.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하는 움직임은 있다. 시스템오토파트는 공동 창고로 요코하마에 창고를 빌려, 일부 재고 부품을 관리한다. 사토 유기(佐藤勇輝) 전무는 “요코하마라면 하카타까지 하루에 도착한다. 우리 회사는 아키타(秋田)지만 거래가 없었던 회원과의 거래가 늘었다. 단순히 시장이 확대되었다.”라고 지적한다. 운송량이 열쇠가 되는 물류에서는, 공동 창고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NGP일본자동차 리사이클사업 협동조합에서는 엔진이나 범퍼의 포장에 리터너블(재회수) 자재를 사용하는 등 비용 저감을 위한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물류는 재활용 부품을 운반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아킬레스건’이며, 앞으로도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다.

시장 확대를 위한 희망 사항으로서는 재활용부품의 새로운 보급 촉진이다. 일본 국내에서의 자동차 보수 부품 시장에서의 재활용 부품의 점유율은 겨우 5%에 불과하다. 후카자와 히로시(深澤広司)회장(리빌트공업회 전국연합회)이 “구미와 비교해도, (일본은) 소비자의 가치관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일반 소비자의 재활용부품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다.

상용차도 예외가 아니며 “승용차와 비교해 인지도는 더 낮은 것은 아닌가.” (일본 트럭리파인파트협회 미야모토 마키(宮本眞希) 대표 이사)라는 단계이다.

사회에서 활용 촉진과 인지도 향상을 위한, 시책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자동차 리사이클부품 협의회(리협)의 시미즈 노부오(清水信夫)회장은 ‘손보 업계 등 5단체로 최종 사용자를 위한 PR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소개. 리협은 도쿄도 내의 JR 역전에서 재활용 부품의 특징을 실은 전단을 배포하는 등 계몽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홋카이도(北海道) 내 재활용 부품 네트워크인 에스·에스·지는 “일반 소비자에게 전단을 배포하며, 지난해는 정비 공장에 계재용으로 소비자를 향한 포스터를 작성하였다.” (하마다 야스오미(浜田泰臣) 사장) 라며 사용자를 의식한 활동을 중시한다. 재활용 부품을 활용하는 것은 수리하는 정비사업자 등이며, 최종 이용자인 최종 사용자인 일반 소비자이다.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는 주지 활동이 역시 중요하며, 지속적이며 꾸준히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일간 자동차신문 2015년 2월 6일(금)

**KOBELCO**

燃費のコベルコ!  
低燃費のコベルコ!  
低燃費のコベルコ!  
低燃費のコベルコ!

## コベルコが提案する 新しい考え方

1979年世界初の自動車解体機の発売以来、  
30年以上にわたって金属リサイクル分野で常にリードし、  
環境負荷の低減に貢献してきました。

### マルチ解体機

使用済み自動車の解体以外にも廃家電などの金属製機器の解体および  
さまざまな複合廃棄物の解体・分別作業が可能です。



SK135SRD

SK210D

コベルコ建機株式会社  
<http://www.kobelco-kenki.co.jp/>

**KOBELCO**

We Save You Fuel  
Achieving a Low-Carbon Society

## New ideas come from KOBELCO

Since launching the world's first car-dismantling machine in 1979,  
KOBELCO has continued to take the lead in the metals recycling industry.  
For over 30 years, we have contributed to reducing environmental impact.

### Multi-Dismantling Machine

In addition to dismantling end-of-life cars,  
Multi-Dismantling Machine can break down  
various metal products and equipment  
such as used household appliances and  
can separate and sort various composite  
material wastes.

### Car-Dismantling Machine

Car-Dismantling Machine efficiently  
separates and sorts raw materials in  
end-of-life cars and is able to recover  
rare earth metals.



SK210D



SK210D

**KOBELCO CONSTRUCTION MACHINERY EUROPE B.V.**  
<http://www.kobelco-europe.com/>  
**KOBELCO CONSTRUCTION MACHINERY U.S.A. INC.**  
<http://www.kobelco-usa.com/>

**KOBELCO**

神鋼 无坚不摧!  
坚硬的選擇

## 新构想源于神钢

1979年世界第一台汽车拆除机发售以来，  
30多年来一直引领金属再生领域，  
在降低对环境压力方面功不可没。

### 多功能拆除机

不仅可以拆除不再使用的汽车，还可以  
拆除废家电等金属制机器以及各种复合  
废弃物品的拆除、分类作业。

### 汽车拆除机

可快速进行报废汽车内素材的分类作业，  
能够回收稀金属资源。



SK1358R

SK200

成都神鋼工程机械(集团)有限公司  
<http://www.kobelco-jianji.com/>

**KOBELCO**

We Save You Fuel  
Achieving a Low-Carbon Society

## 새로운 발상은 KOBELCO에서

1979년 세계 최초로 자동차 해체기를 출시한 이래,  
30여 년에 걸쳐 금속 재활용 분야에서 항상 앞서서서  
환경 부하 저감에 공헌해 왔습니다.

### 멀티 해체기

용도 폐기된 자동차의 해체 외에도 폐가전제품 등 금속제 기기의  
해체 및 다양한 복합 폐기물의 해체·분리작업이 가능합니다.



SK1358R



SK200

 (주)삼정건설기계  
<http://www.samjung-kenki.co.kr/>



Go Go Japan Industry (M) Sdn Bhd

Lot 15, Jalan 4/32A,

Mukim Batu Industrial Area, 6½ Mile Off Jalan Kepong  
52000 Kuala Lumpur, Malaysia.

Tel : 03-62415258 Fax : 03-62415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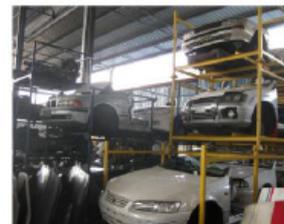
高品質  
High Quality  
品质高超



低価格  
Reasonable Price  
价格合理



迅速なデリバリー  
Speedy Delivery  
交货迅速



優れたサービス  
Excellent Service  
服务卓越



For Enquiry, Please Contact / 询问洽购, 请联络 : 03-6241 5258

< Parts Supplying Fully Back Up by HIDA TEC Japan >

Tel : 025-539-1515

Email: narc-2001@helen.ocn.ne.jp



JOUETSU Branch

Tel : 025-274-1516

Email: narc-2004@ace.ocn.ne.jp



KAETSU Branch